

- 사업명 : 2016년도 문예기금 창작뮤지컬육성 해외공동제작지원
- 심의일시 : 2016. 8. 12(금) 14:00
- 심의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회의실(2층)

2016년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 해외공동제작지원은 해외공동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9작품이 접수되었고, 심의는 서류와 인터뷰 통합심의로 진행되었다. 심의는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30%), 해외공연시장 경쟁력(30%), 해외진출 전략 및 계획의 충실성(20%), 공연단체의 역량(20%)을 기준으로 각 단체가 제출한 서류 및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 지원작품을 선정하였다.

무엇보다도 해외 공동제작이 앞으로 창작뮤지컬의 해외 진출과 시장 확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는 교류에 의미가 있는지를 중점으로 고려하였다. 지원 작품 중 국내 시장에서 충분히 작품성을 검증받지 않은 작품들은 우선 배제하였다.

이러한 기준 하에 이번 사업의 지원작으로 뮤지컬 <투란도트>와 <브레멘 음악대>, <마이 버킷 리스트>를 선정하였다.

<투란도트>는 하얼빈 그랜드 하우스 개관작으로 초청받았으며, 이번 공연을 통해 중국 내 공연 제작사들과 라이선스 판매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 의미와 시장 확장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켰다.

<브레멘 음악대>는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꾸준히 공연하면서 작품을 업그레이드 해온 우수 아동 뮤지컬로서, 중국 시장에 국내 아동물을 소개하고 아동 공연 시장 개척에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마이 버킷 리스트> 역시 국내에서 흥행한 콘텐츠로서 일본 시장에서의 시장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총각네 야채가게>를 통해 일본 시장 진출의 노하우를 지닌 단체라는 점도 선정 이유로 작용했다.

창작뮤지컬 육성 해외공동제작지원 사업은 한국 뮤지컬 시장을 해외로까지 확장시키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미 해외 시장을 개척한 작품보다는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을 도전하는 검증된 작품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

창작뮤지컬 해외공동제작지원 심의위원 일동